

6·25전쟁

냉전과 분단이 낳은 동족상잔의 비극

1950년 ~ 미상



1 개요

6·25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38선 전역에 걸친 북한의 전면 남침을 통해 발발하였다. 본래 남북한 간의 전쟁으로 시작되었으나 전쟁 발발 직후 유엔군이, 유엔군의 38선 돌파 이후 중국군이 개입함으로써 국제전으로 비화되었다. 1951년 초부터 전선이 38선 부근에서 교착되고 전쟁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양측은 휴전회담을 개시하여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에 조인하였다. 전쟁으로 남북한 모두가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입었으며, 국제적으로는 냉전이 심화되었다.

2 전쟁의 배경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일본군의 항복 접수와 무장해제를 위해 미국과 소련은 한반도를 분할 점령했다. 본래 분할점령은 임시적인 조치로 미국과 소련은 한반도 문제의 해결방안을 담은 모스크바 결정서에 따라 미소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한반도에 임시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해당 정부와 협력하여 미국, 영국, 중국, 소련 등 4대국에 신탁통치를 건의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두 차례에 걸친 미소공동위원회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한국 문제는 미국의 제안에 따라 유엔으로 이관되었고 소련이 유엔의 남북한 총선거 결정을 거부함으로써, 남과 북에는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적대적인 두 개의 분단 정권이 수립되었다.

북한 지도부는 1949년 3월 무렵부터 한반도에 대한 무력통일을 구상했고 이의 실현을 위해 스탈린(Joseph Vissarionovich Stalin)의 승인을 얻고자 했다. 스탈린은 처음에는 주한미군의 남한 주둔과 북한의 군사력이 남한에 비해 절대적으로 우위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북한의 구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그는 1949년 6월 주한미군의 남한 철수가 완료되고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소련의 원자탄 실험 성공 등으로 사회주의권에 유리한 정세가 조성되었다고 판단했고, 중국의 지원을 조건으로 북한의 무력통일 구상을 승인했다. 이후 중국도 미국이 참전할 경우 전쟁 지원 의사를 밝히며 1950년 5월 무렵에는 북한, 중국, 소련이라는 공산주의 3국간에 대남 무력 공격에 대한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한편 이러한 무력통일 구상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북한의 군사력 증강 또한 이루어졌다. 북한은 1948년 말경부터 군사력 증강작업에 착수하여 소련제 전차와 기계화 부대를 중점적으로 편성하기 시작했다. 이어 1949년 7~8월경 소련제 무기와 장비들이 대규모로 북한으로 밀반입되기 시작했고 국공내전에서 중국공산당이 승리한 후에는 5만 명에 가까운 중국군 출신 한인들이 북한으로 귀환하면서 북한 지상군의 전력은 급격히 증강되었다.

3 전쟁의 발발과 유엔군의 참전

김일성과 스탈린이 마오쩌둥(毛澤東)과 협의해 수립한 남침계획의 기본전략은 1950년 6월 말에 전면공격으로 신속히 서울을 점령하고 남한 내부에서 인민봉기를 유발해 한국정부를 전복하는 한편, 빠른 시일 내에 남해안까지 진출해 미국 증원군의 한반도 상륙을 막고 1개월 내에 전쟁을 종결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북한군 부대들은 1950년 6월 23일까지 모든 공격준비를 마쳤고 그 사이 북한정권은 평화통일안을 남한에 제의하는 등 위장 평화공세를 이어갔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38도선 전역에서 북한군은 전면공격을 시작했다. 관련자료 당시 한국군은 북한군보다 병력이 열세였을 뿐 아니라 미국이 이승만 정권이 내세운 '북진통일'의 위험성을 우려하여 별다른 무기 지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기와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이에 더해 6월 23일, 육군 본부는 자정을 기해 비상경계령을 해제하였고 24일 밤에는 사단장급 이상 일선 지휘관들이 육군 장교구락부 개관 연회에 참석하기 위해 근무지를 벗어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군은 북한군의 전면공격에 효과적으로 방어하지 못하고 급격히 붕괴되었으며 북한군은 전쟁 발발 다섯 시간도 안 되어 개성을, 3일 만에 당초 계획대로 서울을 점령했다. 그러나 북한군은 본래의 계획처럼 한국군을 한강계선 이남에서 포위, 섬멸하는데 실패했고, 도

하장비 및 훈련의 부족으로 진격이 지체되었으며, 예상했던 인민봉기 또한 발생하지 않았다. 결국 이러한 차질로 인해 남해안 진출이 늦어지며 미국이 한반도에 개입하기 전에 신속히 전쟁을 끝내려던 북한의 초기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다.

한편 유엔을 동원한 미국의 전쟁 개입은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전쟁발발 소식을 접한 미국은 미국 시간으로 6월 25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를 긴급소집하여 북한이 평화를 파괴하고 있으며, 적대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북한군을 38도선 이북으로 철수시키라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관련사료 이어 7월 7일에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한반도에서의 군사활동을 위한 유엔군 구성이 결정되었으며, 이를 위해 미국에 최고지휘권이 위임되고 미 극동군 사령관 맥아더(Douglas MacArthur)가 유엔군 사령관에 임명되었다. **관련사료** 이렇게 전쟁에 참전하게 된 유엔군은 부산을 거점으로 낙동강 방어선을 지켜내면서 반격의 기회를 노렸다.

4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과 38선 돌파

1950년 9월 15일 감행된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은 밀리던 전세를 일거에 뒤집는 계기였다.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시킨 맥아더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수많은 상륙작전을 성공시킨 인물이었고, 조수간만의 차와 복잡한 지형을 이유로 인천상륙작전을 만류하는 미 합동참모본부를 설득해 승인을 얻어내고 어려운 상륙작전을 성공시켰다. 인천상륙작전에는 261척의 함대와 미 해병대 제1사단, 미 제7사단 등 총 7만 5천 명의 병력이 투입되었으며, 낙동강 전선에 대부분의 군대를 투입하고 있던 북한군은 인천에서 제대로 저항 한 번 못하고 붕괴되었다. 인천에 상륙한 유엔군은 9월 26일에는 서울에 진입하였고 이후 동해안과 서해안을 따라 38선에 가깝게 계속 북상하였다.

인천상륙작전을 통한 전세 역전으로 한국군과 유엔군이 9월 말까지 사실상 전쟁 이전의 상태를 회복하자 전쟁 이전의 분계선이었던 38도선의 돌파 여부가 최대의 관심사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38도선 돌파 문제는 유엔군 참전의 목적 문제와도 연관되었고 중국과 소련의 전쟁 개입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예민한 문제였다. 그러나 1950년 9월 27일 미국의 트루먼(Harry S. Truman) 대통령은 중국과 소련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국경지역에는 한국군만 진출케 한다는 조건으로 미군의 38선 돌파를 승인했고, 이어 1950년 10월 7일 열린 유엔총회 또한 이른바 ‘10·7 통일한국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유엔군의 참전 목적을 한반도의 원상회복이 아닌 완전한 군사적 승리로 재규정하고 유엔군의 북진을 허가했다. **관련사료** 이로써 10월 1일, 한국군과 유엔군은 38선을 넘었고 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5 중국군의 개입과 전황의 변화

후퇴하기 시작한 북한군은 중간에 방어망을 칠 여유조차 없이 북쪽으로 밀렸고 38선을 돌파한 한국군과 유엔군의 전진은 거칠 것 없이 계속되었다. 이에 유엔군 사령관 맥아더는 국경지대에는 한국군만 파견하라는 트루먼 대통령의 지시를 묵살하고, 10월 24일 모든 유엔군에 압록강까

지 진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관련사료 중국은 유엔군의 38선 돌파에 대해 이미 여러 경로로 경고하였으나 맥아더는 중국군의 개입 가능성이 전혀 없으며 설사 중국이 개입한다 하더라도 유엔군이 대승을 거둘 것이라 낙관하고 있었다. 관련사료 그러나 중국은 10월 13일 6·25전쟁 출병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였고, 10월 19일과 10월 26일 두 차례에 걸쳐 18개 사단 20만여 명의 중국군이 압록강을 넘어 한반도로 들어왔다.

결국 맥아더의 명령에 따라 압록강으로 진격하던 한국군과 유엔군은 10월 25일부터 중국군의 공세에 맞닥뜨려 진격을 정지하고 청천강 선으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도 유엔군사령부는 소수의 중국군이 참전한 것으로 판단하고 중국군이 조직적 전력을 갖추기 전에 전쟁을 종결 짓겠다는 구상으로 11월 24일 다시 압록강을 향한 진격작전을 재개했다. 유엔군의 진격이 재개된 직후인 11월 25일과 26일, 중국군은 18개 사단에 이르는 막대한 병력으로 서부전선을 공격하여 유엔군의 방어선은 붕괴되었고, 11월 28일 맥아더는 '완전히 새로운 전쟁'에 직면해 있다는 특별성명을 통해 중국군 참전에 대한 자신의 오판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야 했다. 유엔군의 방어선이 급속히 붕괴되며 이른바 '12월 후퇴'가 이루어졌다. 12월 26일 중국군과 북한군은 38선을 넘어 남진을 시작했고 1월 4일에는 다시 수도 서울을 점령했다.

6 전선의 교착과 휴전회담의 전개

파죽지세로 남하하던 중국군은 보급선이 길어지고 전투로 인한 피해 또한 커지자 충청도 부근에서 남진을 멈췄다. 이에 유엔군은 곧 제한적인 반격을 취했고 1951년 3월 말, 전선은 다시 38선 부근에서 교착되었다. 1951년 5월 미국은 유엔주재 소련대사 말리크(Yakov Alexandrovich Malik)에게 미국의 휴전의사를 타진했고, 말리크는 제안을 받아들여 1951년 6월 23일 공식적으로 휴전을 제안했다. 관련사료 소련의 제안에 대해 중국과 북한은 반대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1951년 7월 10일 본격적인 휴전회담이 시작되었다. 관련사료

휴전회담에서는 의제 선택과 의사일정 채택 문제, 군사분계선의 설정 문제, 정전감시 조항 및 정전감시 기구 구성 문제, 전쟁포로 처리에 관한 문제 등이 논의되었다. 의제 선택과 의사일정 채택 문제를 제외한 모든 의제에서 공산군 측과 유엔군 측은 심각하게 대립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대립은 전쟁포로 처리에 관한 문제를 놓고 벌어졌다. 문제는 유엔군이 억류하고 있는 북한군 및 중국군 포로들 중 본국으로 송환을 원하지 않는 포로들이 다수 있다는 데에서 비롯되었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북한군 포로들 중 전쟁 초기 북한군 남하 시 강제 징집된 남한 출신 '의용군' 포로들이, 중국군 포로들 중에서는 국공내전에서 패배한 후 강제 편입된 국민당군 출신 포로들이 다수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이에 유엔군 측은 포로 개인의 의사를 존중한 '자유송환'을, 공산군 측은 포로의 본국으로 자동적인 송환을 규정한 제네바 협정 조항을 들어 '자동송환'을 주장하며 대립했고 휴전회담은 장기간 교착되었다. 회담이 이처럼 장기화되는 동안 38선 부근의 전선에서는 고지를 뺏고 빼앗기는 치열한 고지전투가 계속되어 수많은 양측의 군인들이 목숨을 잃었다.

난항을 겪던 휴전회담은 미소의 지도부가 교체되며 돌파구를 찾았다. 소련에서는 1953년 3월 스탈린의 사망이, 미국에서는 1952년 말의 대통령 선거에서 6·25전쟁의 종전을 공약으로 내세운 아이젠하워(Dwight David Eisenhower)의 당선이 휴전회담 재개의 계기가 되었다. 이에 휴전회담은 1953년 4월 16일 공산군 측의 요청에 따라 재개되었고, 6월 8일에는 유엔군과 공산군이 서로의 통제 아래 포로들의 송환 의사를 확인하고 결론을 내리지 못한 포로들은 인도군이 관할하는 지역으로 이송해 양측이 함께 설득작업을 벌인다는 데 합의하였다. 이로써 휴전협정은 조인을 목전에 두고 있었으나 포로 처리 합의에 반대한 이승만 정권이 유엔군이 억류하고 있던 송환 거부 포로 2만 7천여 명을 일방적으로 석방시키며 다시 한 번 위기를 맞았다. [관련사료](#) 이 사건으로 공산군은 휴전회담을 다시 중단시켰으나 한국군이 휴전협정을 준수하도록 유엔군이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통해 회담은 가까스로 재개될 수 있었다. 그 결과 7월 22일 군사분계선이 확정되었고, 7월 23일에는 비송환 포로들이 비무장지대 내 인도군 관할 지역으로 인계되었으며, 7월 27일에는 판문점에서 휴전협정이 조인되었다. 이를 통해 6·25전쟁은 전쟁이 시작된 지 3년 1개월 2일 만에 종료되었다.

7 6·25전쟁의 영향

6·25전쟁은 국내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큰 영향을 끼쳤다. 무엇보다 전쟁은 전쟁의 무대가 되었던 한반도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다. 전쟁으로 인해 한국군 약 62만 1천 명, 북한군 약 64만 명이 피해를 입었고, 후방에서 벌어진 학살과 폭격 등으로 남한에서 약 99만 1천 명, 북한에서 약 107만 8천 명에 달하는 민간인이 피해를 입었다. [관련사료](#) 물질 피해도 엄청나 한반도 전체가 폐허가 되었고 남북한의 사회 및 경제 기반이 철저히 파괴되었다. 이러한 인적, 물질 피해와 더불어 전쟁은 또한 남북한 상호간의 적대감을 극대화시키며 분단을 고착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깊어진 적대감과 불신 속에서 휴전 후 남북 관계는 대치와 도발, 상호 군비 경쟁으로 점철되었고, 이러한 대결 분위기는 남한의 극우 반공 체제 강화와 북한의 김일성 중심 단일지도체제 수립에 영향을 미쳤다.

한편 6·25전쟁은 국제적으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미소간의 냉전이 더욱 격화되면서 양진영 간의 이데올로기적인 대결과 군비 증강, 그리고 블록간 군사대결이 첨예화되었고, 동북아시아의 냉전구조 또한 심화되었다. 미국은 6·25전쟁을 계기로 군사력을 크게 증강하여 세계 1위의 군사대국이 되었으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강화, 아시아태평양기구(ANZUS)·동남아조약기구(SEATO)·중앙조약기구(CENTO) 등의 결성을 통해 소련에 대항하는 집단안보체제를 수립하고자 했다. 소련 또한 이에 대응하여 북대서양조약기구에 대응할 수 있는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강화하고 군비를 증강했다. 한편 공산권에서 전쟁은 소련과 중국 및 북한 3자 사이에 갈등이 시작되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했으며, 이로 인해 향후 북한과 중국의 자력갱생 노선 출현에 영향을 미쳤다.